



바다무지개

2016년 7월 초



7월 17일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이 헌법의 하위인 법률에 해당되며, 법의 적용은 상위법이 우선시되므로 만일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45년 광복이 되고,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때의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후 헌법은 총 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9차 개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또는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라고 불리는데, 헌법이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 시행

EPS 또는 취업교육시스템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입력 : 2016-06-19 13:55:52 | 수정 : 2016-06-19 13:55:5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통합관리시스템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동포취업교육시스템을 연계해 EPS 또는 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해도 외국인노동자가 휴면보험금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입국 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한 인지를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24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돌려줬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올해에는 32억 상당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수 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직원 파견, 외국인력상담(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 법무부, 227개 유관기관에 홍보전단 배포,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등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휴면보험금 모바일 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EPS 애플리케이션인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EPS 앱 로그인 화면을 캡처해 공단 이메일(sleepy@hrdkorea.or.kr)로 응모 시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20일부터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통합관리시스템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동포취업교육시스템을 연계해 EPS 또는 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해도 외국인노동자가 휴면보험금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하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201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을 시행하는 타기관의 자료까지 통합하여 526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해 '201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특히 이번 통계연보에는 '15년부터 시행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취득자 647,670명을 포함한 총 취득자는 27,576천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자격취득자 수 비교 결과 지난해가 647,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여성 자격취득자 수는 252,203명으로 약 40%를 차지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 현황

기관명	종목수	종목명	수탁연도
총 계	526		
한국산업인력공단	478	※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다른 검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종목을 제외한 종목	1982년
대한상공회의소	15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1984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3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2008년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산업기사·기능사	2009년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9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2010년
	7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3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2010년
한국광해관리공단	2	광해방지기술사·기사	2010년
	4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시추기능사	2012년
	1	자원관리기술사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013년



2015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기사 3종목에 10명, 기능사 4종목에 41명 등 총 7종목에 대해 51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였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 연령별 취득자 현황, 접수 상위 10종목, 1인당 자격취득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니, '201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단위 : 명)

구분				평가 현황					자 취 득 자 현 황
				내부평가	외부평가				
기관명	등급	연도	성별	교육훈련생 수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합 계	소 계	15	전체	319	205	174	51	29.3	51
			전체	319	205	174	51	29.3	51
	산업기사	15	여	17	14	14	1	7.1	1
			전체	50	41	37	10	27.0	10
	기능사	15	여	0	0	0	0	0.0	0
			전체	269	164	137	41	29.9	41
			여	17	14	12	1	8.3	1

발 간 사

발간에 즈음하여 ...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기술자격은 능력중심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직무를 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여 교육현장에서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을 평가·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출제 기준을 정비하고, 실기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 간 격차를 줄이고,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통한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처럼 올해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역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배출된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및 취득자 현황을 수록하여 국가기술자격 통계의 최신성을 반영하였고, 통계정보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에 분리되어 제공되던 시험 현황과 취득자 현황을 통합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취득자의 연령 구분을 세분화하여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청년 고용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가기술자격의 허브기관으로서 공단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수탁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매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가자격정보망인 큐넷(Q-net)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 3.0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는 국가기술자격 시행 초기부터 2015년까지의 시험 및 취득자 현황 등 국가기술자격 통계를 정부기관부터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본 통계연보가 국가기술자격통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박 영 범



2016. 06. 27(월)

'캄보디아에 전한 한국의 정(情)'... 산업인력공단, 초등학교 시설정비·학용품 전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풍살람 초등학교를 방문해 노사합동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 노사합동 글로벌 사회공헌활동팀 40여명은 학교 페인트 칠하기와 공부방 만들기 등을 도와주고 준비한 학용품(수첩+볼펜 세트) 및 다과 등을 선물로 전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는 울산지역 숙련기술인 봉사회가 함께해 이미용 분야 숙련기술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500여명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으며, 캄보디아 현지 우리나라 의료자원봉사단체인 헤브론 병원도 함께 사회공헌활동 현장을 방문해 초등학생들의 건강검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과 체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비영리 기구(NGO)인 월드쉐어(World Share)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외국인근로자 송출 국가 중 식수 부족국가를 대상으로 '희망의 우물'을 기증했으며, 네팔의 아동복지시설에 냉장고를 전달하고 태양광 전열기 5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현지 시행을 마무리하고 귀국 비행기 대기시간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과 손종배 노조위원장은 “공단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숙련 기술인과 현지 의료봉사 단체가 함께해 더욱 뜻 깊다”며 “노사가 함께 민간 사절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고용주들이 직접 직업훈련의 빈틈 메꾸어

- 계속해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음. 베트남 및 대규모 투자자들을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개선이 시급함.
- “한국의 LG Display는 2017년 초, 베트남 북부 지역 Hai Phong에 15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시설 설립을 계획 중임. 그러나 LG Display는 먼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찾아야함. 차세대 OLED 스크린을 생산할 이 시설은 건설 시작 한 달 이전에 6,000명이나 되는 현지 노동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됨.
- 직원들은 연구 & 개발(R&D), 감독 및 품질 관리와 같은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임. 그러나 전 인원이 공식적으로 공장시설에서 일하기 이전에 최소 1~4달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함. 그리고 R&D 부서는 심지어 몇 년간의 훈련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함. 해당 훈련 프로그램들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회사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LG Display에서 자체로 만든 것임.
- 다른 사례로 현재 베트남 북부의 Bac Ninh, Thai Nguyen에 대규모 복합 제조단지를 보유한 Samsung의 직원은 약 110,000명임. Samsung은 호치민시에 14억 달러 규모의 가전제품 복합단지 가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5,000명의 직원 고용이 필요할 것임.
- 숙련된 직원이 요구됨에 따라 Samsung은 일부 대학과 협정을 체결함. 그리고 직원들은 복합단지 내에서 훈련 코스에 참가해야만함.

- 복합단지 내에서 직원들은 영어 및 한국어, 회계, 전자 공학 또한 배울 수 있음. Samsung은 기술자들의 기술 훈련, 학습, 연구 활동을 위해 하노이 산업대학교(HUI), 하노이 과학기술 대학교(HUST)와 협력함. 최근 Samsung은 하노이 산업대학교(HUI)에 연구실을 설립함. 주요 이용 목적은 하노이 산업대학교의 학생과 강사진들의 학습, 연구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함임.
- 대만의 Foxconn Technology Group과 협력해서 설치한 대학 내에 Hon Hai 기술 훈련 센터와 같이 하노이 산업대학교(HUI)는 많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과 협력해왔음. 해당 센터의 정규 코스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현재 Bac Ninh에 위치한 Foxconn 공장에서 근무 중임.
- 한편 하노이 과학기술 대학교(HUST)는 Toyota, Lotte, Nippon, Toshiba, Compal, Dasan, Posco, LG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한 약 40개사와 협력 관계를 늘리는 중임. 하노이 과학기술 대학교(HUST)의 많은 학생들이 앞서 언급된 기업들에 정규직으로 취직함. 게다가 호주 기업 3곳과도 협력했으며, Intel, IBM, American Technologies, Cadence Design을 포함한 미국기업 14개사와도 훈련 프로그램 시리즈 전반에 걸쳐 협력함. 추가적으로 ABB, Siemens, Orange France Telecom, Festo를 포함한 14곳의 유럽 회사들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함.
- 한국의 의류 생산 기업 KJ VINA의 인사부장 Quach Thi Nhung는 Binh Duong 공장의 1,600명의 근로자들을 다시 훈련시켜야 한다고 전했음.
- 그는, “새로운 직원들이 정식으로 공장에서 일하기 전, 보통 한달에 걸친 훈련과정을 이수한다.”고 밝힘.

- IBM Vietnam의 대표 Eric Yeo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체인으로써 발전하길 원한다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그는, “베트남이 더 높은 부가가치와 기술 집약 산업, 서비스 분야 발전을 더 갈망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필수적으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함.
- 세계은행은 최근 ‘Skilling up Vietnam: 현대 시장경제를 위한 인력 준비하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육·기술훈련 측면에서 베트남을 관찰하고 의견을 나누었음. 해당 보고서는 “베트남의 경제 현대화에 숙련된 인력이 중심이다.”라고 서술함.
- 또한 해당 보고서는 “베트남에 있는 고용주들은 적합한 노동자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초학력과 산술능력은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 부족으로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하였음.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들의 활동을 조사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63%의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부족으로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의 기업이 이 문제가 사업 상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목했음.
- 약 40%의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문제로 여김. 그리고 46%가 직업교육을 문제로 여김. 다국적 기업들의 고용주들이 직원들 중 14%가 그들의 직무에 완전히 적격은 아니라고 밝혔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8 June 20 – 26, 2016]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베트남 교육을 세계수준으로 성장시켜

-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최우선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준에 맞는 교육 정책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진전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베트남의 교육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응한 베트남 교육훈련부(MoET)는 베트남의 교육과 직업 교육 부문에 이뤄지는 외국 투자 및 협동 사업 규정들을 검토 중임.
-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 협력처 부회장 Pham Chi Cuong은 “이 검토 과정은 제한된 베트남 학생 비율, 허가 문제 그리고 교육기관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법적 체계 수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베트남 경제신문지 VIR에 전함.
-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해당 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거쳐야 할 난관들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국가의 교육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최근 몇 년간 해당 산업에 해외직접투자(FDI)를 저지하는 주된 원인이 됨. 해외 투자가 유치되는 산업 중 교육은 여전히 낮은 순위권에 머물러있음. 베트남 투자기획부의 외국투자청(FIA)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6월 13일까지 베트남은 교육 및 직업 교육 부문에서 276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총 7억3,584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함. 유치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미국이 1억7,930달러를 투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이 9,837만 달러로 2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8,042달러로 3위를 차지함.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는 18개의 산업 중에 교육은 여전히 17위에 머물러 있음.

□ 남은 과제들

- 교육투자 관련 현행 규제들의 복잡성은 이미 2012년부터 여러 비즈니스 워크숍 및 포럼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었음. 이때 2012년 11월에 정부시행령 No.73/2012/ND_CO이 발효되었고, 이에 맞게 베트남의 교육 및 직업교육부문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협조 프로젝트가 관리되었음.
- 2016년 6월 초에 열린 “하노이 2016 - 투자 및 개발 협력”에서 British Business Group Vietnam의 부회장 Christopher Jeffery가 베트남이 집중해야 할 주요 문제로 인허가, 시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하면서 교육투자 관련 규제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음.
- Jeffery는 “해외 기관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머물기 위해서는 3개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절차는 서로 비슷하지만, 반드시 각 면허증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취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정부시행령 73이 애매해서 개개인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전함.
-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 기준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임. 현재 논점은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이미 절차과정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애매하고 일관성 없는 해석들까지 발생한다는 것임.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선택폭을 좁히게 하며 이에 따라 학생 모집은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투자유치도 힘들어짐. 이 연쇄작용은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재능 있는 졸업생들을 육성하기도 힘들게 만들. Jeffery는 다양한 학문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 그는 해외 기관이 제공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는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시설 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 함. 학생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해외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내에서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적 유대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British University Vietnam(BUV)와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PPP) 등 해외 투자자들이 세계 수준의 시설들을 개발하여 교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 그리고 하노이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임.
- 베트남 정부 간 공식대화채널(VBF)의 Education and Training Working Group의 팀장 Brian O'Reilly는 현재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는 베트남 학생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내 베트남 학생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표함.
- “현재 적용된 제한 때문에 해외 투자가 베트남 제2의 도시(세컨드 티어·Second Tier)에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베트남 학생 인원이 외국인 학생 전체에 10~20%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을 제외하고 제2의 도시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수는 매우 적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베트남 학생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임
-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제한된 투자 자본, 외국인투자기업 들의 시설에 대한 정부 사찰, 교육 기관의 운영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부족 그리고 교수진들에 요구되는 높은 기준 등이 있음.

□ 약속된 땅

- 베트남 외국투자청(FIA)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육 투자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호치민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가 2억6,770만 달러에 이르는 128개의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음. 다음은 하노이로, 현재 2억1,550만 달러에 이르는 10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다낭이 이어서 1억5,811만 달러에 상당하는 1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지난 몇 년간,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베트남 교육부문에 투자했었음. 이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Kinder World Education Group임. 이 외에도 다낭에 있는 American Pacific University의 1억5,000만 달러의 프로젝트, BUV의 7천만 달러 상당의 Nagai Vietnam Centre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Oasis Development Management의 프로젝트 등이 있음.
- 베트남은 또한 영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독일 기관들을 국가에 받아들였음. 여기에 베트남에서 교육상품을 만들기 위해 천만 달러를 지난주에 Egroup에 투자한 한국의 청담러닝 회사도 포함됨.
-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형성된 노동이다. 우수함과 밝은 미래를 향한 헌신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협조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며 정부시행령 73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임.” 라고 Jefferey는 언급함.
- 현재로써는 베트남 정부와 교육훈련부가 교육과 교육훈련 분야에 자본 유입을 저하하는 요인들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8 June 20 – 26, 2016]

캄보디아서 치러진 고용허가제 시험장을 가다

전 세계 15개 송출 국가 중 4년 연속 1위...9,000명 한국행 전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평가시험 (EPS-KOPIC)이 실시된 지도 벌써 12년째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누적 집계 54만 여명이며, 현재 28만 명의 근로자들이 5만 여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해외근로자 송출 업무가 본격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다른 외국송출 국가들보다 시작한 다소 늦었지만 이웃나라인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그 숫자가 오히려 더 많다.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총 15개 송출국가 중 4년째 연속 1위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9,000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송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성실성 때문이다.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평가시험장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신원을 확인중인 캄보디아 응시생들의 모습.

이로 인해 한국 고용주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율도 낮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산업인력공단 박태훈 캄보디아 지사장의 설명이다.

지난 6월25~26일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노동부 주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됐다.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이번 시험에 수험생 5만4,983명이 응시했으며, 6.1대 1의 경쟁률로 치열했다.

시험 첫날 오전 캄보디아 노동부 픽소폰 차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이사, 김현식 한인회장이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학교 수험장을 찾았다.

픽소폰 차관은 현지 방송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정부가 더 많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고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환 이사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이 서로 협력해 고용시장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놈펜 소재 시소왓 고등학교에 마련된 제1시험장은 노동부 차관과 공단 측 인사들이 당도하기 전부터 이미 수험표를 손에 쥔 응시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교문 앞에 설치된 전자 지문인식 장비 앞은 긴장된 가운데 응시생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관리 요원들이 응시자들의 신분증 뿐 만 아니라 지문인식을 통해 일일이 신원을 확인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불법 또는 대리응시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현지 노동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험표를 단 응시자들이 수험번호로 자신이 시험을 치를 고사장을 찾아가느라 아침 교정은 꽤나 부산스러웠다. 자기 책상을 간신히 찾은 수험생들의 표정은 잠시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더니 곧바로 긴장모드로 바뀌었다. 그래도 기자와 눈이 잠시 마주친 한 수험생은 동남아사람들답게 미소로 화답해주었다.

이윽고 시험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펜을 쥔 수험생들의 손과 눈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 학력고사 세대인 기자에게는 과거의 옛 추억을 되살려주었다. 잠시 기억이 과거에 머물자 기자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 지난 6월25~26일 양일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시행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는 무려 5만4,983명이 응시해 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읽기(40분)와 듣기(30분) 문제로 구성된 시험은 4가지 유형 시험지가 시험 감독관에 의해 수험생들에게 배포됐다. 자세히 보니 컨닝을 최대한 막기 위해 앞과 뒤, 옆 사람의 시험지가 모두 달랐다. 문제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였다. 한국의 문화나 교통법규, 버스타기 등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유독 많았다. 듣기 문제 역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나 함정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과거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를 했더니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 대신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문제 외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 그래서 요즘은 이를 보완해 토익과 같은 실제 언어능력과 한국의 실생활에 주안점을 둔 문제 유형으로 바꿔 변별력을 높이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수년전 고용허가제 시험이 도입됐을 당시에 해도 프놈펜 시내 현지인이 운영하는 일부 한국어 교습학원들은 정상적인 한국어 수업 대신 시험문제 정답 외우기 수업이 한때 성행했던 적도 있었다.

시험 전 인터뷰를 해본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대체로 한국말이 서툴지만, 일부는 기자가 묻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었다. 이 정도면 한국에 가서도 잘 적응할거란 생각이 들었다.

잠시 눈을 돌려 시험장 밖에서 서성이는 수험생 가족을 만나봤다. 한 수험생의 어머니였다. 이 여성은 기자가 수험감독관쯤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까지 말하며, 잘 좀 봐달라는 말을 했다. 이 여성은 교문 틈에 양손을 쥔 채 시험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다.

이윽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다시 교정이 시끄러워졌다. 시험지를 서로 비교해가며 진지하게 답을 맞춰보는 시험생들 부터 벌써 합격이라도 된 냥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은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한 응시생에게 합격해서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니 “기계용접을 배운 적이 있어 큰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꿈이 뭐냐고 재차 물으니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구요.”

문득 과거 1970년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독일로 떠났던 우리네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떠올랐다.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국에 가길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들이 소망하는 코리안 드림이 부디 이뤄지길 바란다.

박정연 재외기자 | planet4u@naver.com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체결 이기권 노동장관, 우즈벡 공식 방문... 불법체류 감소 등 논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3-31 22:01:35 송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31일 압두하키모프 우즈벡 노동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하고 있다.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31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 중에 압두하키모프 우즈벡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우즈벡 정부가 송출비용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출국 전 사전 취업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양국 장관은 이날 고용허가제 근로자 불법체류 감소방안, 직업훈련개발 협력사업(ODA) 활성화, 한국 청년들의 우즈벡 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종수 기자(jepoo@)

주한 캄보디아 신임대사에 룡 디망쎈 임명 업무 공백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16. 05. 27 10:23:56(박정연 재외기자 | planet4u@naver.com)

최근 한국거주 자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부정부패혐의 등으로 자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ACU) 소환조사 끝에 결국 구속된 쏫 디나 전 대사에 이어 프놈펜광역시 대변인 출신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됐다고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룡 디망쎈(36) 신임 주한대사는 캄보디아 외교부 핵심 실세이자 80년대 쿠바대사를 역임한 룡 비살로 차관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유학파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아직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아그레망(새로운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곧 부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된 룡 디망쎈.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전임 대사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국제결혼서류 등 관련행정업무가 거의 중단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박정연 재외기자]

2016. 06. 03

방글라데시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출간 《한국어와 벵골어의 첫걸음》

“친구들이 밤새 떠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한 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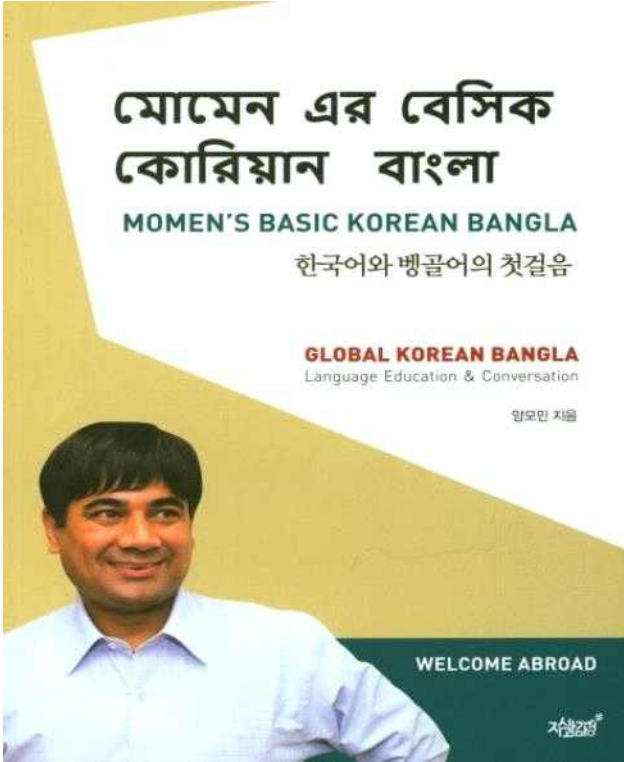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하니깐 힘들어요.”

“임금은 150만원 받기로 했는데 120만원만 줘요.”

지난 5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글라데시인을 위한 회화책 《한국어와 벵골어의 첫걸음》(지식과 감정)이 출간되었다. 책에는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이나 유학생을 위한 교통, 음식 및 문화, 쇼핑에 관한 생활 회화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망라되어 있다. 책을 집필한 방글라데시 통역상담사 양모민 씨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빈번히 통역을 요청하는 상황들을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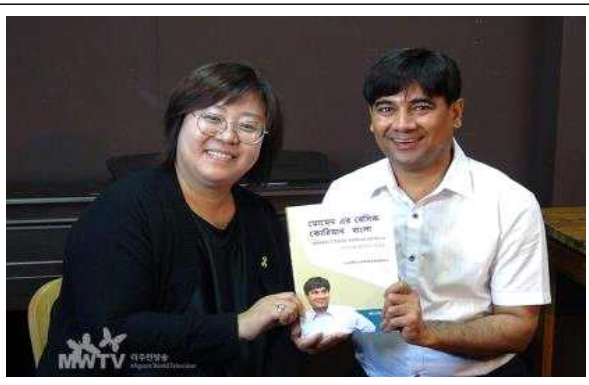
“이주노동자들이 방글라데시에서 고용허가제로 올 때 한국어를 배우고 오지만, 막상 회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이리 와서 이 기계를 봐줘라’는 말을 못 알아 들어요. 또 아파도 ‘아프다’는 말 외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서 치료받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민 씨는 한국 생활 20년차의 통번역사이다. 방글라데시 다카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10년간 했던 모민 씨는 4년 전부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을 위한 통역상담을 하고 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통번역인명단에 등재된 법률전문통역사이기도 하다.



3년 전 방글라데시로 출장 가는 한국인들이 벵골어 가이드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책을 만들게 된 모민 씨는, 방글라데시 여행이나 비즈니스를 원하는 한국인들도 이 책을 통해 벵골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인도 시인 타고르를 낳은 언어이기도 한 벵골어는 방글라데시의 국어이자 인도 공용어로 전 세계 2억 인구가 사용하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 이다.

현재 한국에 출간된 유일한 방글라데시어 회화책인 이 책은,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가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민 씨는 책 발간과 더불어 오는 6월 중 한국어와 벵골어를 함께 배우는 라디오



▲ 이주민방송 정혜실 공동대표와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양모민 씨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은 이주민방송 MWTV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다.

MWTV 숲씨 기자 (mwtvbae@gmail.com)

제2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 개최

국내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 억제·지카바이러스 공동대응 등 협력 강화

2016.06.09 10:50:47



▲ 제2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 참석자들. (사진 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가 6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 측 정진규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과 트리 싸리얏 인도네시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한국 내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공조 방안, 한-인니 고용허가제 운영 등 양국 간 영사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해적 관련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한-인니 영사협의체가 영사 당국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영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차기 회의를 내년 중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창원시'외국인근로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앞장 세계인의 날 맞아 '

외국인근로자 창원 적응 매뉴얼' 제작/배부

기사입력 2016/05/21 [06:59]



경남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위원장 안상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창원'매뉴얼을 제작, 이주노동자들에게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에는 1200여 개의 사업장에 59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창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고용허가제 절차 안내 △임금체불 구제방법 △외국인근로자 참여행사 △창원시 대표축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업사랑과 내 '가혹행위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공인노무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관리교육 실시 등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창원시를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아름다운 다문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시티투어'와 전국 최대 규모의 09월 11일(일) 예정인 “창원시 외국인근로자어울림한마당(주최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후원 : 창원시, 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 등)” 더욱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2차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 강사,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각 강사들의 소개 후 오찬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각 강사들의 교수법을 공유하였고,
그 외에도 교육생 관리법,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과 더불어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로 각 강사간에 좋은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강사와 직원들이 만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 2016년 06월 05일(일)
12:00~13:00, 15:00~16:00
- 장소 : 동해 참 가자미 횃집,
106 호 강의실
- 내용 : 한국어교육 교수법 공유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참석자 : 센터장, 교육운영팀,
한국어 강사 및 자원봉
사자 20명



TOPIK3급 1차 자격취득과정 간담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TOPIK3급 1차 자격취득과정의
교육생, 강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TOPIK3급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공부하며, 느꼈던 점,
TOPIK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
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교육생
들이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
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
다.

○일시 : 2016. 06.05(일)

16:30~17:00

○장소 : 102호 교육실

○참여인원 :

- 교육생 베트남 근로자 팜 꾸
잉 흐영 외 15명
- 강사 이유숙, 보조강사 박선
경, 교육문화팀

○내용 :

- TOPIK3급 1차 자격취득과정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토론



25회 무료 미용 서비스 실시

봉사미회 봉사자분들께서는 봉사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몇몇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 주문도 하였고, 미용사분들은 그에 맞춰 정성스럽게 스타일링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이용해 주셨고, 또 만족하셨습니다.

봉사자분들은 뿌듯해지고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웃으며 돌아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시 : 2016.06.12.(일)

08:40~12:40

○장소 : 교육실 복도

○내용 : 무료 미용 서비스



5회차 자동차정비과정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사업인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 5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의 작동원리와 세부적인 기계의 구성 부품의 조립과 조립등에 대한 실습위주의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의 열심히 집중한 모습속에서 지식과 기술, 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 2016.06.12.(일)

10:00~16:00

○장소 :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내용 : 자동차정비 이론 및 실습

○참여인원 :

- 베트남 근로자 찬딘돈 외 18명



2016 생활법률자체교육 2회차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회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생활법률교육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고용허가제 주요 용어사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의 역할, 권리, 중요 용어와 기본 지식을 익혀, 사업장과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일시 : 2016.06.12.(일)

12:00~13:00

15:00~16:00

○장소 : 각 반 교실

○대상 : 한국어 교육 회원

○내용 : 고용허가제용어사전



2016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사업 -농기계 수리과정 4회차 -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사업인 취창업 훈련과정 -농기계 수리- 4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의 뛰어난 교육시설과 커리큘럼, 그리고 훈련생들의 열의와 경남 농업기술원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훈련생분들이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가진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일시 : 2016.06.12.(일)
10:00~16:00

○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내용 : 농기계수리 이론
및 실습

○참여인원 :

- 캄보디아 근로자 섬반
외 21명

2016년 산업안전교육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6월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관계자분께서 수고해주
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한국어 강사분
들이 함께 현장에서 접하고 발생
하는 각종 산업안전과 위험표지,
기계를 다룰 때 주의 사항들을
배우고, 실제 사례들을 접하였습
니다.

이번 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더욱 건강하고
향상된 능력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다과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일시 : 2016.06.19.(일)

12:00~13:00

○장소 : 101호 강의실

○내용 : 산업안전교육



2016 자동차정비과정 6회차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 사업인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 6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부품구성과 조립, 실제 작동방식을 익히고, 자동차의 세부적인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되는지를 배우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모두 자동차 정비의 전문가가 되어 더욱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16.06.19.(일)

10:00~16:00

○장소 :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내용 : 자동차정비 이론 및 실습

○참여인원 :

- 베트남 근로자 찬딘돈 외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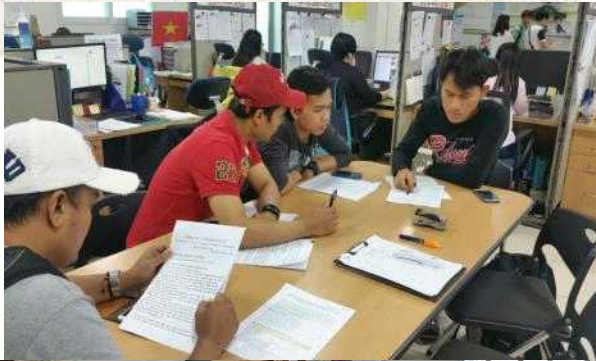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제 5차 HCC Home coming Community



○일시 : 2016년 06월 26일 (일)
12:00~13:00

○장소 : 각 국가별 지정 교실

○내용 : 귀국의식함양 교육(HCC)

○주제 : 다섯 번 째 이야기, 한국의 직업
생활-한국 생활 설계

2016년 06월 26일 일요일, 창원외국인력
지원센터에서는 귀국의식 함양 프로그램
의 일환 중 1년 미만 초기입국자를 위하
여 제 5회 HCC를 실시하였습니다.

제 5회 HCC 주제는 한국의 직업 생활-한
국 생활 설계를 설계해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6회 HCC는 2016년 07월31일 일요일
12:00~13:00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101호 베트남근로자
102호 네팔근로자



2016

모범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는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함께 '2016 모범외국인 근로자 1일 경남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1일 경남투어는 대한민국 힐링여행 1번지이며 전통의약 비밀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경남산청 동의보감촌을 방문하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동의본가, 한방자연 휴양림 등이 어울린 세계제일의 한방의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기업의 산업현장 진주 '대신정공(주)'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경남의 선진 기계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노무관 등 3명이 참석해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함께 경남투어에 참여하여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일시 : 2016. 06.26(일)

09:00~18:00

○참여인원 :

- 캄보디아 근로자 아마탁 외 31명
-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1명,
노무관 2명
- 행정요원 5명(센터)

○장소 :

- 경남산청 동의보감촌
- 진주 대신정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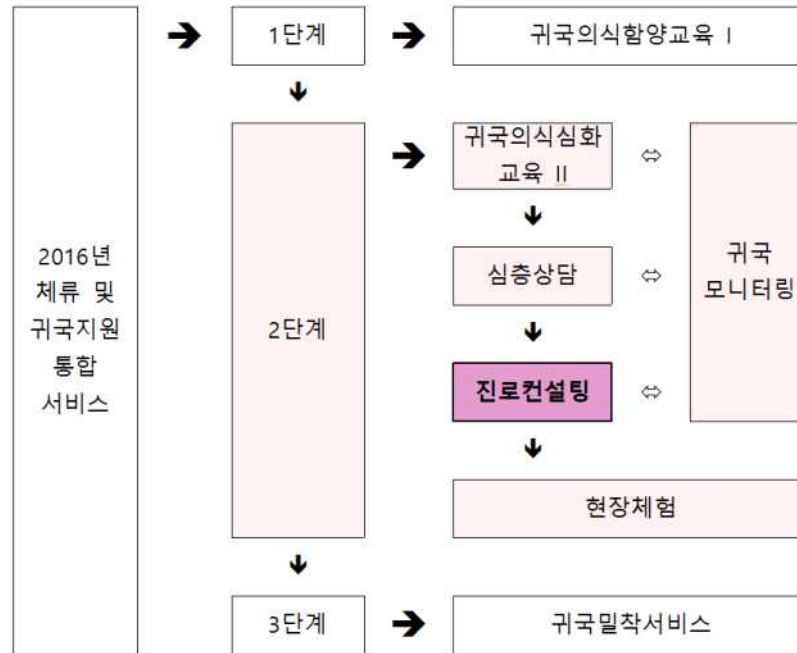
○내용 :

- 경남산청 동의보감촌 관람 및
체험
- 대신정공(주) 견학





귀국지원 3단계 취·창업교육



대상 국가	▶ 9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원	▶ 총 90명				
강사	취업전문가, 창업전문가				
일정	일정	국가	인원	통역원	
				취업	창업
	6월 5일(일)	베트남	10	이현정	통역원
		네팔	10	스네하	통역원
	6월 12일(일)	캄보디아	10	신지아	통역원
		인도네시아	18	김소윤	통역원
	6월 19일(일)	필리핀	20	박은정	통역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10	전문자	통역원
	6월 26일(일)	우즈베키스탄	9	강류다	통역원
		중국	6	소유채	통역원

6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6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결과

국가	비자	상담유형
네팔	E-9	비자변경
방글라데시	E-9	재입국 대상
필리핀	E-9	비자변경
스리랑카	E-9	퇴직금
베트남	E-9	산재신청
중국	H-2	비자변경
6건		

○ 2016년 6월 26일(일)

○ 13:00-15:00

○ 장소 : 상담실

○ 자문 변호사 : 황현종

○ 내용 :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 법률 상담이 새로 개설되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을 내딛은 '코리아에이드(Korea Aid)'

글·사진 : 유예미(홍보실 인턴기자)

우리 정부는 5월 28일~31일 나흘 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출범식 및 시범 사업을 펼쳤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우리 의료진과 봉사단이 현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보건을 중심으로 음식,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강점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개발정상회의 계기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채택 후, 우리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을 포함한 4개의 새로운 개발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빈국(LDCs)* 및 취약국 지역의 소녀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시작했고, 협의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취약계층인 소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합 개발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방안이 제안되었다.

*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극빈국가들로 48개국 중 34개국이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사하라 이남의 절대빈곤(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상태)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41%로 전세계 평균(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곤율 기록

올해 초 외교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보건), 농림축산식품부(음식), 문화체육관광부(문화)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에이드(Korea Aid)' TF팀이 구성되어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였다.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하며, 수원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체결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에티오피아 재정경제협력부(3.4), 우간다 외교부(3.4), 케냐 재무부(4.11)와 LOI 체결

5월 28일~31일,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협의를 거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에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우선적으로 선보였다. 총 10대(지원차량 2대)의 이동식차량으로 '찾아가는' 보건(△검진차량 1대 △앰블런스 2대), 음식(△조리트럭 3대, △냉장트럭 1대), 문화(△영상차량1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1] 보건(K-Medic) 차량



[사진2] 음식(K-Meal)에서 제공하는 쌀 가공 영양식

보건(K-Medic) 차량에서는 수혜자들에게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 진료서비스 제공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음식(K-Meal) 차량에서 영양에 맞춘 쌀 가공품과 현지식을 맛보며, 문화(K-Culture) 차량에서 핵심적인 보건위생교육 영상과 더불어 현지 수혜자가 쉽게 다가 올 수 있도록 만화, 영화 등 한국 문화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동형 방식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ODA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진3] 케냐 시범사업 보건(K-Medic) 진료 현장



[사진4] 에티오피아 시범사업 중 문화(K-Culture) 차량에서 영상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

이번 3개국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약 4,200명의 현지주민이 참여했으며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였고, 케냐의 경우에는 영부인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하였다.



[사진] 에티오피아 국영언론 The Ethiopian Herald(5.26) 보도

South Korea unveils plan to boost healthcare in slums

by Seth Onyango
@SethManex

Low-income households are set to benefit from a medical programme aimed at bridging health disparities in Kenya — boosting First Lady Margaret Kenyatta's Beyond Zero campaign.

Dubbed Korea 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itiative promotes outreach of health services, nutrition,

hygiene and education.

The initiative is part of the basket of goodies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to the country during her just concluded three-day state visit to Kenya.

President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Shik Kim expressed need for investments in equitable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Kenyans in marginalised areas.

[사진] 케냐 People Daily(6.2) 코리아 에이드 관련 보도

현지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에티오피아 국영언론 The Ethiopian Herald(5.26)는 박대통령의 방문소식과 더불어 사설을 통해 코리아 에이드를 보건(K-Medic), 문화(K-Culture) 및 음식(K-Meal)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동형 개발 프로젝트로 소개하면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케냐의 People Daily(6.2)는 코리아에이드를 케냐의 저소득층의 건강/보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보건 프로그램이라 소개, 이 프로그램은 의료서비스, 영양 보급, 위생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KOICA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코리아에이드를 지속적이고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지 의료인력 활용과 현지 음식과 접목을 강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현지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 성생식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경 사업이 정착된 후에는 수원국(기관)에 전체 차량을 이관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첫 발을 내 딛 '코리아에이드(Korea Aid)'! 계속해서 수원국과 함께 발전하는 개발협력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CFC 우수상담사례

산재보험 신청

베트남 상담원 이현정

○상담개요

- 베트남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가슴 부위를 다쳤는데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함. 근로자는 상해보험을 청구하였으나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자신의 친구는 상해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는데 본인은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보험 지급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해보험의 수급자격요건은 업무 외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동반되어야 함.

- 근로자는 산재치료를 위한 병원비, 진료비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거절함. 치료비는 지인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향후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음.

2. 상담포인트

- 산업재해 사실 확인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날인, 서명 등의 확인 절차가 없더라도 날인거부 사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처리함.

-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해보험자의 자살(자해), 정신질환, 임신, 출산, 형의집행으로 인한 상해 및 의수 등 신체보조 장구에 입은 손해

CFC 우수상당사례

2.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3. 전쟁, 오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상해
4. 핵연료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
5.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반등반, 글라이더 조성,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등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CFC 우수상담사례

③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2010.11.21]]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

CFC 7월 행사 안내

첫째 주	◆마산의료원 무료 의료진료(15:00~17:00)-상담실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2차) ◆TOPIK 3급 1차 자격취득반 수료식(15:30~17:00)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상담(09:30~17:00)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 (09:30~17:00)	◆2/4분기 지도점검 실시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성동조선 해양주식회사) (12:00~14:00)
둘째 주	◆캄보디아 자국기념일 행사(11:30~) ◆26회 무료 이민용서비스 실시(08:40~12:40) -교육실 복도 ◆10주차 취·창업훈련과정 자동차정비 수료식 (10:00~ 17:00)-경남자동차정비학원 ◆힐링닥터스 한방 무료진료(15:00~17:00)-다문화카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상담(09:30~17:00)	◆통영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 (09:30~17:00)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2/4분기 워크숍(11:00~17:00 (예정))-102호
셋째 주	◆송출국 대사관과 함께하는 귀국지원 설명회 ◆제 47회 TOPIK 시험 실시-경남대학교 ◆제 12회 컴썬왕 대회 개최-컴퓨터교실 ◆운전면허 교실 개강-컴퓨터교실 ◆마산대학 건강프로그램(15:00~17:00)-104호 교육실 및 다문화 카페	◆상반기 수료식 반별 기념촬영-다목적홀 ◆외국인근로자가 살고싶은 행복도시 창원 (15:00~18:00)- 다목적 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상담(09:30~17:00)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 (09:30~17:00)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0:00~14:00)
넷째 주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제 2단계 제 4과제 「현장체험」(08:00~18:00)-거제, 남해 등 ◆무료법률 상담서비스(13:00~15:00)-상담실 (또는 3층 이노카페) ◆2016년 상반기 수료식 및 Korean Dream 한마당 (12:00~15:00)-101호 다목적 홀 및 주차장 ◆2회차 운전면허 교실-컴퓨터교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상담(09:30~17:00)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성동조선 해양주식회사) (12:00~14:00) ◆상담원 역량강화교육(15:00~16:00)-다목적 홀 ◆HCC사전교육(16:00~17:00)- 다목적 홀
다섯째 주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제1단계 “귀국의식함양 교육(HCC)”실시(12:00~13:00)-교육실 및 다목적홀 ◆교육프로그램 하기방학(~8/13)	◆3회차 운전면허 교실-컴퓨터교실 ◆TOPIK 3급 3차 자격취득반 OT 및 사전수업 (13:00~15:00)-102호

C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후원 계좌 >

-후원 해 주셨습니다.-
06.이 // 제이엠커리어 // 1,000,000원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